

국립의전원법 상임위 통과 “환영”

남원시, 설립 부지 상당 부분 매입하는 등 행정절차 진행 국회 수시방문... 남원시의회·전북도·시민단체 등 노력

남원시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재 발의된 후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된 상태였으나, 민주당이 상임위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추가 상정

하며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의해서 처리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는 국가적 과제인 필수 의료분야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및 심각한 지역 간의 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자 그동안 남원시·남원시의회·전북도·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남원시는 당초 당·정·청 합의와

보건복지부의 설립부지 결정 이후 법률안이 통과되면 즉시 국립의전원 설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립 부지를 상당 부분을 매입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최경식 시장 취임 후 국립의전원 예산 확보 및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수시 방문해 적극 건의했으며, 전북도 또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남원시의회는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수차례 국회의원 면담, 결의안 채택·송부하였으며, 지난 10월 24일 남원시민들과 함께 대규모 상경 집회 등을 진행하고 사발하는 등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남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의사협회와 여당의 이견으로 법안이 추진되지 못했으나,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21대 국회 마무리 이전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고생해 주신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드린다면, 법사위와 본회의의 과정이 남았으나 중요한 고비를 넘긴 만큼 국립의전원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국립의전원 설립을 촉구하는 남원시의원들과 시민들이 국회앞에서 촉구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긴급복지지원 유공 도지사 기관 표창

내년부터 4인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남원시는 전라북도 주관 2023년 긴급복지지원 유공 부문에서 전북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장 내 위기 사유 발생 등으로 소득 감소 및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주민복지과의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남원시는 지역 내 촘촘한 인적 안전망과 공공 및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위기 상황의 가구를 발굴, 1,451세대 2,254명에게 10억2천만원의 긴급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섰다.

또한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부조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대상자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특히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및 지정기탁금을 연계해 대상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였으며, 상·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등으로 보장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연계하는 관리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소득기준 155만원), 재산기준(일반재산 1억5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된다.

주요 위기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증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내년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13.16% 인상될 예정이다.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추운 겨울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큰 시기이므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의 어려움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2023 임실 산타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린다.

‘2023 임실 산타축제’ 23일 개막

임실군, 첫 인공눈 활용 화이트 크리스마스 연출·산타 이벤트 등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길 수 있는 ‘2023 임실 산타축제’가 오는 23일 개막한다.

군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2023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임실 산타축제를 개최, 추억과 낭만이 있는 크리스마스를 선사한다.

임실 산타축제는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실군의 겨울 대표 축제로, 2017년 첫 개최 이후 해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며 큰 인기를 끌었다.

산타축제는 올해에도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함께 구역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선물 이벤트 행사 등 풍성하게 마련했다. 특히 올해에는 처음으로 인공눈을 이용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연출을 통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쌓인 눈을 활용해 눈오리 만들기 체험도 함께 운영한다.

23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공연과

체험, 먹거리, 경관 조성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 가족들과 연인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추억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메인 특별무대에서는 관현악과 국악, 팝페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분수대 광장에 전시된 대형트리와 하루 세 번 산타퍼레이드가 진행된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독특한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이용한 세계의 크리스마스 전시와 다양하고 독특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임실산타카페도 운영한다. 축제장 곳곳에 많은 산타들과 게임 및 이벤트를 통한 선물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이 밖에도 가족트리 만들기, 화덕피자 만들기, 군밤 굽기 등 각종 체험거리와 치즈컬링, 산타썰매 등 놀거리, 그리고 최근 임실군이 야심 차게 출시한 임실치즈빙어빵을 비롯한 먹거리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시장, 비가림시설 준공식 개최... 10억원 투입

순창군이 순창시장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눈비와 햇빛을 막을 수 있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21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복태만 전북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순창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의 직전공연으로 시작으로 국악원의 농악 지신밟기, 기념사, 축사, 테이블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순창시장은 1923년에 개설돼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순창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그동안 통행이 많은 구간에 가림막이 없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상인 및 이용객들의 이동에 불편이 많아 비가림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올해 7월 길이 165.5m, 면적 1,708.7㎡규모로 순창시장 비가림시설 사업에 착공한 후 공사기간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날 사업을 완료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서, 다중운집행사 안전대책 회의 실시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은)는 21일 소풍방에서 경찰서장 및 경비안보과장 등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임실산타 및 2024 국사봉 해맞이 축제 등 관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연말연시를 맞아 행사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및 대책을 점검하고, 행사 개최 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회의는 경비안보과의 다중운집행사 개요 및 안전대책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2024년 상반기 27일까지 행정인턴 모집

순창군이 오는 27일까지 2024년 상반기 행정인턴 25명을 모집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대학생만 대상으로 운영하던 행정인턴 사업을 내년부터는 청년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인턴 근무를 통해 청년들에게 행정업무 및 사회경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2005년생) 34세(1989년생)이하 대학생 및 청년으로, 신청 방식은 모집인원 25명 중 8명은 저소득층 및 원거리 근무지 신청자에 대해 우선 선발하고 17명은 일반선발을 실시,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한다.

접수방법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12월 27일까지 순창군청 행정과 인재개발교육팀에 방문, 우편, E-mail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공직사항’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